시민일보
(2026년 11월 19일 화요일 4면)

송파구의회 '송파의정연구회', 지역 내 자원 재사용·재활용체계 개선 정책 논의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가 지역내 자원 재사용·재활용 체계를 개선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연구회는 지난 16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찾아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를 살핀 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일정에는 이승희 회장과 이희승 부회장, 최옥주·박성희·위정희·김안나·박순례·정성일·정동배·박지선 의원이 함께했다.

중간보고회의 주요 의제는 송파구의 기존 자원순환 체계에 대한 진단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개선책 마련이었다. 의원들은 자원 재사용·재활용 분야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송파형 자원순환 모델'의 기본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할 정책이 실제 지역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책 대안 마련에 앞서 진행한 현장방문에서는 폐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과정과 관련 시설의 운영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는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새활용 제품과 전시·체험 공간을 둘러봤다.

연구회는 두 시설의 운영사례와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참여를 넓히고 자원 재사용·재활용 체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향후 의정활동에 연구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